

9월 4일 오후 서울시립오양원(원장 김유탉). 벌써 일주일째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이곳에는 무거운 적막감마저 흐른다. 오양원 마당 한 귀퉁이에 모여 있던 20여 명의 노인들 사이로 체념 섞인 탄식소리가 들린다.

“을 추석도 가족과 떨어져 쓸쓸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 서럽기만 합니다.” 추석을 맞는 실직노숙자 75명의 보급자리 부산 보현의 집. 2년 전 직장을 잃고 노숙자로 떠돌고 있는 박모씨(45)는 가족을 생각해 한숨만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이 쓸쓸한 추석을 맞는 불교계 복지시설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을 추석에는 장기불황 여파로 복지시설을 찾는 발길이 예전보다 더 뜸해졌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전국의 장애인, 노숙자, 노인, 여성 복지시설들은 명절 때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도움의 손길에

불교복지시설의 추석 “달 밝아도 마음 춥다”

장기불황 여파... 후원금 등 온정의 발길 뜸해

소외감마저 느낀다. 중증 장애인 100여 명이 모여 사는 부산 천마재활원(원장 박근련) 가족들은 이번 추석이 더없이 서글프다. 작년보다 절반이상 줄어버린 후원금에 명절마다 가던 남포동 구경을 올리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추

석 차례상은 업두도 못 낸다. 여성노숙자들의 임시인 화염동산(원장 이인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갈 곳 없는 여성 35명이 기거하는 화염동산은 후원금은 고사하고 정부보조금만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태다. 명절이라 구경에서 놓고

간 농산물 상품권 70장은 쓸쓸함만 더한다. 실직노숙자들의 원주시립복지원(원장 현각), 가정폭력의 아픔을 가진 여성들의 보급자리 자비의 쉼터(원장 오정),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원장 원혜) 등의 시설도 사

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인가 시설이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주 소재세마들은 추석 차례상조차 차리지 못했다.

복지관과 복지재단들도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후원금, 자원봉사, 물품후원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500여 명에 이르던 후원자 수가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 경기 불황을 실감하고 있다.

부산 천마재활원 김정연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후원금이 줄어들어 외부 방문 프로그램은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병원·학교·집 100여채 건립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명명

조계종 대표단 3일 현지서 조성식

스리랑카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9월 2일 현지로 출국했던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포함한 조계종 대표단이 3일 수해지역인 라트나푸라에서 ‘조계종 마을 조성식’에 참석했다. 스리랑카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조성식에는 법장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과 스리랑카 탈 가마게 외교부 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탈 가마게 부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로서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화답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방문 3일째인 4일 오전에는 자야 수리아 부수상 겸 에너지부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사찰에서 모금한 2억3천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스리랑카는 이 성금으로 병원과 학교, 가옥 100여 채 등을 건립하고 이곳을 ‘조계종 마을’로 명명할 계획이다.

한편, 법장 스님은 이날 오후 스리랑카의 주요 불교 종단 가운데 하나인 시암니카야의 붓다 라카타와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은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로서 서로 돕는 것은

스리랑카= 박봉영 기자



찾아 오는 이는 없고... 장기불황의 여파로 추석을 맞은 불교계 복지관이 썰렁하다. 찾아오는 이 없어 TV를 보며 소일하는 복지관의 노인들에겐 추석이 오히려 서글프다. 사진=고영배 기자

기본 교육 마쳐야 신도자격

조계종, 내년부터 입교·교육과정 체계화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삼귀의와 5계를 수계해야만 조계종 신도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본 교육이 신도 의무교육 과정이기는 하지만 신도 등록 후 받게 돼 있어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신도 입교 및 교육 과정 전체를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9월 3-4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신도법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수계(삼귀의, 5계)→신도등록→기본교육→전문교육 등 신생활’으로 돼 있는 신도 입교 및 등

록 절차가 ‘기본교육→수계(삼귀의, 5계)→신도등록→전문교육 등 신생활’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신도’로 규정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수계를 받은 사람에게 한해 ‘신도’ 등록을 받고 신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포교원 박승규 신도과장은 “조계종 신도가 된다는 것은 계를 받음은 물론 이의 의미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자각,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신도 등록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단일 사업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공정화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중앙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선리연구원 10월중 개원

선학원 중장기 발전 계획

선학원이 내년 법인설립 70주년을 맞아 교육 불사를 통한 ‘선학원 중흥’에 나섰다.

선학원은 9월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50여 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학원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진 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체성 확립 및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선학원은 오는 10월 10일 현대 불교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중앙선리연구원을 개원, 도봉·남산·석두스님 등 설립조사 및 역대 이사장의 사상을 연구·조망하고 선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보급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인재육성 및 확보를 위한 불교교육자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선학원은 이를 통해 ‘인재’를 형성할 방침이다. 관련 인터뷰 3면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개산(開山), 산에 터를 닦아 집을 세워 수행도량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개산대제(開山大齋)는 절을 창건한 스님의 열반일에 여는 기일 법회이다. 개산조계예를 표하는 의식을 통해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다.

최근 들어 각 사찰의 개산대제가 불교문화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지역문화축제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날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산사음악회와 찬불합창제, 전시회, 사생대회, 노인잔치 등을 열어 산문이 처음 열린 날을 자축한다. 지역주민들에게는 분홍빛으로

지역축제 된 개산대제

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포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통도사는 10월 3-4일 1358주년 개산대제를 개최한다. 산사음악

회, 합창제, 진주 청곡사 괴불탱 특별전, 재동잔치, 사생대회, 독거노인돕기, 도예전시, 서예전시, 꽃꽂이, 사진전이 열릴 예정이다.

1510주년을 맞는 통도사는 10월 10-12일 산사음악회, 보살계, 차문화제 등을 개최한다. 또 갑사는 1583주년 개산대제를 기념해 10월 26일 제 4회 계통산 산중음악회를 연다.

이밖에 금산사, 은해사, 해인사도 개산대제를 앞두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중이다.

김원우(취재1부 차장)

부산·밀양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0월 1일부터 인터넷·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6차 교육이 부산과 밀양 지역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10월 1일부터 4주(매주 월-금 오전 10-12시)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부산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51-466-0021) 밀양우체국 정보화교육실(055-354-2801)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지사장 김종열 051-632-0064, 011-219-5066
 현대불교신문사 밀양지사
 지사장 해봉스님 055-353-1196, 017-650-1196
- 모집 인원: 부산 5명, 밀양 10명
- 부산지역은 11월에도 1일부터 4주간 교육실시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법보종찰 해인사 1029천도재 스무번째 49재 기념

대만 불광산사 성운(星雲)대사 초청법회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1029일 천도재를 봉행하면서 매년 49재 때마다 여러 큰스님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청해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정 법전큰스님을 비롯하여 조계종 원로 대덕큰스님들이 법상에 올라 사부대중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었고, 영가들에게는 삼계(三界)를 벗어나 극락세계 상공상생의 가르침을 설하여 주었습니다.

오는 9월 15일 스무번째 49재는 1029일 천도법회 회향일을 앞두고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이자 대만불교의 선지식인 성운(星雲)큰스님을 법사로 공식 초청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인사에서 열리는 성운대사 초청대법회는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세계적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 초청일시: 불기 2547(2003)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 초청법사: 대만 불광산사 성운 큰스님
- 문의: 해인사 (055)934-3105~6 해인사 천도재 사무실
 서울 불광산사 02)2276-0993~4 의문법사
- 온라인 접수 계좌번호: 농협 843174-51-009176 /
 우체국 611806-01-002618 (예금주 해인사 천도법회)

대한불교조계종 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세민 합장

제2차 해인사 1029일 조상천도재에 동참하시면 천도재와 함께 동판 팔만대장경을 복간하여 정경법당에 봉안해 드립니다.

귀의 삼보하루고 불자님의 가장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 한국 최고의 수행도량이며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1029일 조상천도재로 인한 불자님 각자의 신비로운 체험에 의하여, 1차에 동참했던 전국 불자님들의 한 번 더 모시자는 권유와 또한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복간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하여 1029일간 조상천도재를 한 번 더 모시기로 해인사 입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엔 다시 봉행하는 천도재에 동참하시는 불자님은 나라와 백성을 구한 호국정신의 결정체요, 세계불교문화 유산인 목판 팔만대장경을 오래 오래 보존하기 위한 동판 팔만대장경 복간불사의 시주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번엔 제2차 해인사 1029일 조상천도재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천도재비 100만원으로 천도재와 함께 동판 팔만대장경을 제작하여 해인사 박물관에 임시 모셨다가 새로 짓는 팔만대장경 법당에 다시 모셔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인사 1029일 천도재에 동참하시어 내 집안의 조상천도재는 물론 구원에 해매는 호국영령과 일체 유주무주 고혼을 다 천도해 드리시고, 또한 최상의 법공양인 동판 팔만대장경을 해인사 정경법당에 모시는 희유한 인연을 살아 생전에 지으시어 집안 대대로 무량한 공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동참안내
 - 불자님께서 이번엔 다시 한 번 조상천도재에 동참하시면 1029일간 조상천도재와 함께 동판의 경판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새로 짓는 팔만대장경 법당에 봉안해 드립니다. (천도비 100만원에는 경판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작되는 경판의 크기와 형태는 해인사에 봉안된 국보 경판과 동일하며, 재질은 1만년 동안 보존되는 동판으로 제작되며, 경판에는 동참자 직계가족(혹은 영가)의 성명, 주소를 마구리(손잡이 부분)에 새겨 드립니다.
 - 가장에도 경판을 모시어 집안의 기대로 간직하고 싶으신 분은 경판대금 50만원이 추가됩니다.